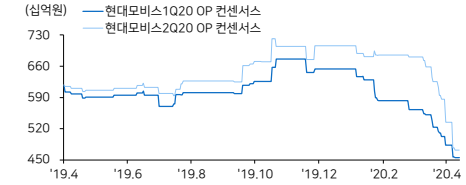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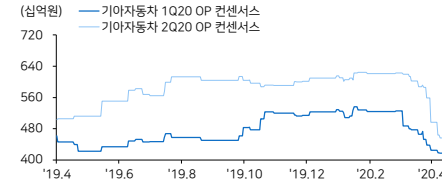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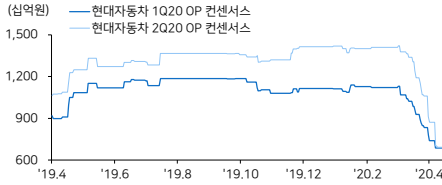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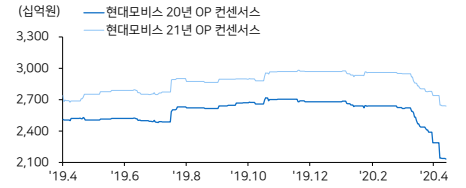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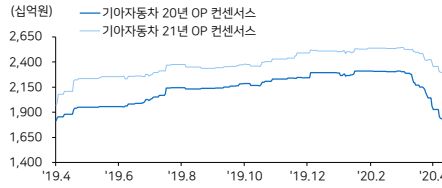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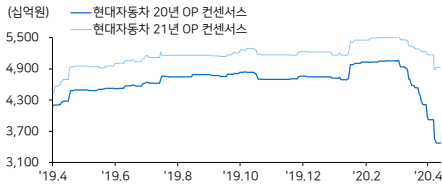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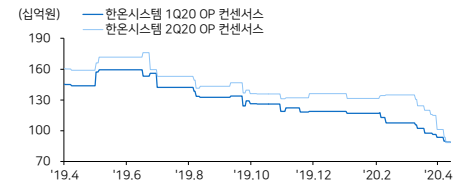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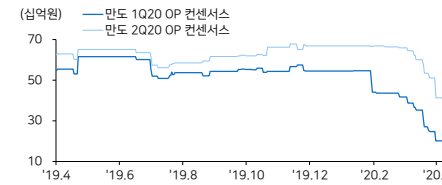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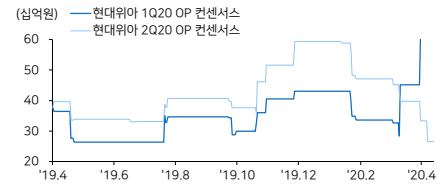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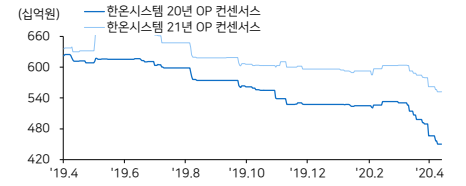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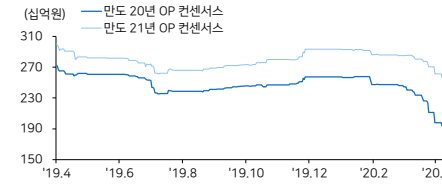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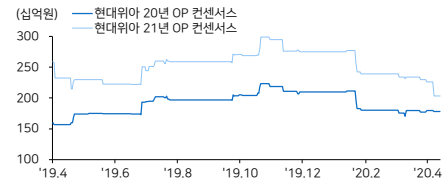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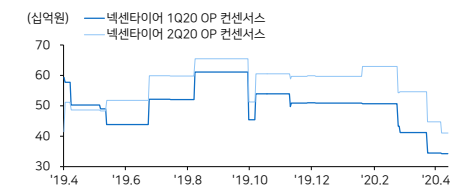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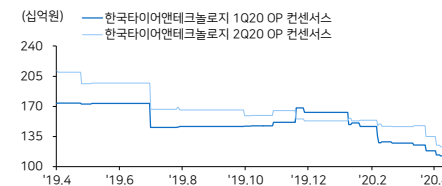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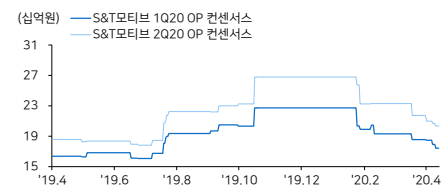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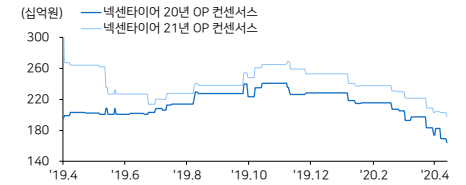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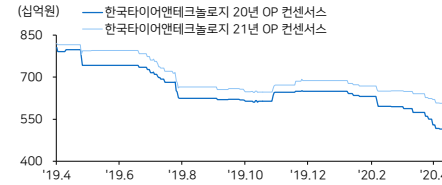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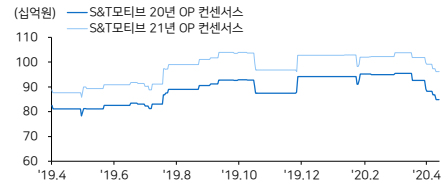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전동화 속도내는 `제네시스` ... 내년 전기차 4종 출격 (디지털타임스)

제네시스가 올해 GV80, G80를 출시한 데 이어 GV70까지 신차를 대거 출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기차를 대규모로 투입한다는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됨.
<https://bit.ly/34UUp56>

"광주형 일자리 손때라" 반기든 현대차 노조 (서울경제)

"광주형 일자리" 2대주주인 현대차의 노동조합이 현대차의 해당 사업 투자 철회를 촉구.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새로 '실효성 없는 투자'를 할 여력이 어디 있는지는 애기.
<https://bit.ly/34UoHov>

기아차, 유튜브 마케팅 돌입... '카TV by 기아자동차' 런칭 (뉴스1)

기아차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고, 고객들에게 기아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'기아자동차 채널'을 '카TV' 채널로 변경.
<https://bit.ly/34ToguM>

자동차부품기업 94%, 신용등급 '루기 수준' (조선일보)

한국 핵심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부품 생태계가 위태롭다. 사드 사태와 인건비 상승으로 누적된 경영난으로 가능한 한 담보를 다 동원해 대출을 내 버리고 있었는데,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돈줄이 말라 버림.
<https://bit.ly/3avEBaa>

현대차그룹, 코로나 사태로 회사채 발행 ↑ (아시아경제)

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울며 연이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. SK그룹 다음으로 채권 발행 물량이 많음. 코로나19 사태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운영 및 차관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됨.
<https://bit.ly/34Tl2Lv>

수출 · 일자리 증추 자동차업계 만난 산업장관 '추가지원 검토' (뉴스1)

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수출과 일자리의 증추 역할을 하는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갖고 추가 지원 검토에 나섬.
<https://bit.ly/2VMdVwH>

"돈가슴 이대로면... 100대 자동차 부품사 절반이 무너진다" (조선일보)

국내 부품사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있음. 본지가 한국의 100대 부품사(현대차 계열사 제외)의 상장사) 중 작년 사업보고서를 낸 91곳을 전수조사 한 결과, 이 중 50.5%가 '유동비율'이 100 이하로 집계.
<https://bit.ly/2yASDdb>

불황엔 중고차 '공식 개겨'...코로나 앞 속수무책 (이데일리)

경기불황기에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산업 중 하나가 중고차.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는 중고차 시장도 속수무책이다. 지난 3월 거래량이 10%나 감소하며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옴.
<https://bit.ly/3c07fFb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